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조 성 룡
(주)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
1944년 5월 동경 생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66년)

부친의 제도책상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부친께서는 디자인을 하는 기계설계엔지니어였다.

집안에 있는 제도판 아래가 내 놀이터였고 스케일, 긴 자 등을 가지고 놀았다.

어렸을 때인 데도 기계도면들이 아주 근사했다고 생각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림 그리거나 글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 미술반도 들락거리고 그림, 합창, 영화 등에 관심이 많은 어린 시절이었다. 어머니는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셨다. 아버지는 20살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모친을 만나 결혼하신분이다. 1930년대에 일본에는 이미 유럽영화가 들어와 있을 때인데, 엄청난 양의 영화를 보신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초등학교시절 어머니와 손잡고 학생출입금지 영화관도 많이 다녔다. 그 영향으로 나는 지금도 영화를 무척이나 많이 본다.

대학진학을 미대로 가려고 하니 집에서 온통 난리였다. 절대 반대라 부친은 차라리 기계설계나 금속공학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그러나 내게 금속과 진학은 관심 밖이었다. 담임선생이 좋은 방법을 제의하셨다. 공대도 가고 예술도 할 수 있는 건축과를 가라고 제안하셨다.

부친께서 1959년도에 일본건축판이라는 책을 구해 보시면서 슬라브 집으로 설계하고 지은 것이 생각난다. 한양공대 건축과 진학이 뜻대로 안 되어 인하공대 금속과에 입학하여 이학년에 건축과로 전과하였다.

캠퍼스의 허허벌판이 근사하게 느껴지다

마침 부친의 공장이 인천에 있었다. 당시 인하공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학교이기는 하나 학교건물은 창고 비슷하게 느껴지고 캠퍼스라기 보다 공장이었다. 한 학기 다니고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전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건축공부를 열심히 했다.

196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장교 훈련을 마친 뒤 대전에 배속되었다. 그 후 대방동 공군본부에서 4년간 설계실에 근무하며 군복무를 마쳤다. 당시 공군은 비행기 기종이 팬텀으로 바뀌는 무렵이라 부대의 모든 시설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였다. 내무반에서부터 시작해서 클럽하우스까지 온통 다 바뀌게 되는 것이다. 주로 콘크리트 보강블럭조에 슬라브를 치고, 미군 원조자재로 짓는 것이다. 설계하고, 견적하고, 현장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도 전기, 토목, 기계설비 담당 장교 등이 같이 의논하여 작업하는, 이를테면 종합사무실의 시스템은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1975년에 사무실을 차리고 독립하다

1970년에 공군제대 후 우일건축에 가서 6년 간 근무 후 1975년에 독립하였다.

우일에서 근무하면서 서강대학 안의 교실과 체육관, 수도원과 수녀원, 구로공단에 짓는 페어체일드 반도체공장 등을 설계하였다. 반도체 공장도 면은 전부 영어로 되어있고, 영어시방서, 영어로 된 계약서 등인데 당시에 미군공병단 사무실 빼고는 영어로 된 일을 하는 곳이 드물었다. 주로 그래픽 스탠더드 책을 참고하고, 스위츠 카탈로그 보고 설계하였다.

1975년에 우일건축에 있을 때 김종성 교수님이 IIT공대 부학장으로 안 식년에 오셨다. 교수님은 흥대, 서울대 등에 강의를 나가고 나는 두 개의

설계경기에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정림건축과 경쟁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 김종성 교수님은 미스 반 데어로어의 거의 마지막 제자로(미스는 글도 안 써서 남아 있는 것이 작품밖에 없었는데) 교수님을 통해 미스의 건축을 공부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용마루 모임 등 동호인 모임에서 건축에 대한 갈증을 풀다

사무실을 빨리 차리고 독립하고 싶었는데, 일찍 한 셈이다. 막상 '우원 건축'을 차리고는 후회를 많이 했다. 인하공대는 다른 대학보다 늦게 생긴 학교이고, 나는 3회 졸업생이다. 그러니 선배사무실이 있을 턱이 없다. 동호회 모임인 '용마루' 모임을 결성하고 건축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찍 독립한 것이 마치 들뜬같이 비바람 맞아가면서 많은 공부는 되었지만 경험을 쌓고 독립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오래 동안 머릿속에 있었다.

첫 번째 사무실은 지금의 광화문 옆 피맛골 근처에 있었는데, 5년 동안 있다가 교보빌딩으로 들어서면서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다. 종로 1번지에 있다가 강남으로 가게 된 셈인데, 강남지역 개발이 진행되던 때다. 이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수원, 대구, 부산지점 등을 설계하였다.

운이 따랐는지 부산지점은 22층으로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이사장이 바뀌면서 김수근 선생이 신용보증기금의 일들을 맡게 되어 나는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계획이 아시아선수촌 당선까지 이어지다

그동안 한 일 중에서 계속 맥을 이어가는 일이 있다. '김포뉴타운1970'이란 타이틀로 졸업설계(1965~1966)를 해서 국전에 출품까지 하여 특선을 받은 일이 있다. 당시에 우리에게는 뉴타운 개념이 없었지만 이미 그 당시에 영국에는 여러 군데 모범적인 뉴타운의 호시들이 있었다.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지금의 발산역 일대에서 한강에 이르는 넓은 벌판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세운 것이다. 30층이 넘는 초고층 타워 형으로 하고, 전철이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도 세우고 미래비전을 세운 것이다. 특선 당시 심사위원이 김종업 선생이었다.

아직 아파트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던 1977년쯤 누가 찾아왔다. 서울의곽지역에 연립주택을 짓는 회사인데, 본격적으로 아파트 해보겠다고 했다. 자기 집으로 와서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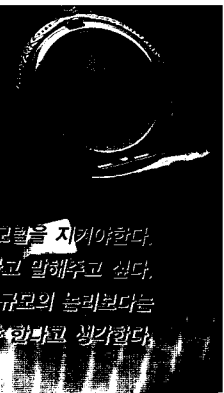
반포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세워진 우성아파트 기본계획을 6개월 학습 하면서 작업했다. 당시에 전은배, 이종상 등과 같이 아파트 배치와 단위평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에는 부동산 업자들을 불러 품평회도 했다. 그랬더니 일차형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었다. 6개월간의 학습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우성과의 인연이 끝났다 생각했었는데, 6~7년 지난 후 아시아 선수촌(1983~1986)에서 우성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시아 선수촌 설계경기에서 우리가 학습하면서 했던 요소들을 채택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이니 헛수고는 아닌 셈이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은 내가 어디에 살았느냐 봐도 관련이 있다.

강남 에이아이디 아파트에 살았는데 당시 영동백화점 사거리 근처이다.



대형조각은 활랑한 일만 하고 모험을 지키야 한다.
 직업윤리를 지킬 때만이 대형사무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사무소건 작은 사무소건 규모의 논리보다는
 건축사라는 '프록세서빌리티'가 확립되어 직업의 자긍심을 지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7~8년간 살았는데 버스도 안 다닐 때였다. 강남에 일찍 와서 살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 많아진 것이다. 당시 한국은 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경험 없던 시절인데, 일본말에 익숙하기에 도시주택 책들을 틈틈이 봐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의 최고높이가 12층 정도 일 때인데, 주공에서 2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프로토타입 설계경기를 계획하여 당선된 적이 있다. 두 개 층을 하나의 입면모듈로 정리한 계획이다. 상계동 단지에 한 동 세워졌다. 공중에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했는데, 막상 주민들은 싫어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시아선수촌 이후로 일이 없어 주택시공을 하다

개업 후 한 일들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인하대 학생회관(리노베이션 1984~1986년)이다. 원래 원정수 교수님이 설계한 건물인데 증축하며 리노베이션을 했다. 연면적이 3천 평이 넘어 이것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학교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기에 환관 없이 곳곳에 출입구가 있는 마치 도시의 일부로 인식한 계획이다. 아시아선수촌 일을 끝으로 일이 없었다.

그 당시에 설계한 합정동주택(1986년)은 주인이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콘크리트를 무리하게 시도했다. 청담동주택(1987년)은 직영으로 공사까지 맡아 직원 한명하고 둘이 시공을 한 것이다. 마침 노태우 대통령이 이 백만호를 부르짖을 때라 자재부족으로 애를 먹었다.

그리고 1988년에 지은 바로크빌딩은 노선상업지역에 지은 삼백평 정도의 건물인데, 도시 미관지구에서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적 유행을 따르고 루이스 칸 흉내도 내고 한 것이다. 사무실도 그 빌딩으로 옮겼다.

1988~1989년에는 일본에 있는 '갤러리 마'에서 '한국건축가 3인 전' 전시회 준비로 한참 생각이 달라지고 할 때였다.

'양재동287-3(1992년 건축가협회상)'은 그 당시 강남의 변화가 양재동 일대로 번지기 시작할 때이다.

해운대빌리지(1993년), 우성캐릭터빌(1994) 등이 후속타로 이어지게 된다. 해운대 빌리지는 빌라 19세대인데 경사지에 대응할 공동주택으로 제안해서 지어졌던 것이다. 도곡동 우성캐릭터빌은 주상복합으로 하층부에 오피스텔, 그 위에 아파트의 구성인데, 복층아파트 형식으로 2개 층마다 복도가 있는 타입이다. 타워팰리스가 지어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제일 높은 주상복합타워였다. 강남의 주거형식이 변화하는 파도를 탄 셈이다.

1995~1999년도 까지 종합사무소제도 때문에 고생했다

1992년에 종합사무소 제도, 소규모 건축설계, 설계분리 등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건미준'(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활동을 하였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났다. 종합사무소 제도가 없을 때였다. 건축사협회에서는 삼풍백화점과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는데, 건축사 면허와 관련 없는 다른 협회에서(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종합사무소로 사고와 관련 있는 것처럼 밝혔다.

그 후로 1999년 의재미술관까지 별로 일이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1999년 의재미술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1999년에 의재미술관(2001년 준공,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수상)으

로 다시 건축계에 등장할 때까지 서울건축학교 일을 열심히 했다.

그 다음 해에 선유도공원(1999~2002, 김수근문화상, 건축가협회상, 서울시건축상)을 끝냈다. 2003~2004년에 해인사 산행문화도량의 설계경기에 당선되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승인이 안 되어 미루어지다가 해인사자체에 문제가 생겨 없던 일로 되었다. 현대적인 재해석의 사찰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아쉬운 일이다.

비슷한 시기의 지엔아트스페이스(2004~2008년 준공)는 백남준미술관과 관계가 무척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그 후로 동대문디자인프라자(2등, 2007년), 행정중심도시 공동주택(3등, 2006년), 태권도공원(2등, 2008년) 등 국제설계경기에 지명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겨우 당선된 고암 이응노기념관(당선, 2008년)은 지금 감리를 하고 있다.

전시관 면적이 삼백 평가량 되고 기념관까지 오백평 정도 되는 일이다. 화가의 생각과 연결된 풍경 개념으로 풀은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작업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고 있었다

건축사의 작업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지기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강남의 부동산 붐, 초고층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의 변칙인 빌라 등은 결국 건설사의 영리목적에 건축사들이 맹목적으로 부응한 것이지만 성찰 없이 따라간 필자도 되돌아보면 마찬가지다.

그동안 미술관 건축 몇 개하고 지내왔지만 건축사의 숙명은 권력과 자본의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정해야 한다. 현재 직원은 8명 정도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몇 년 동안의 변화라면 큰 프로젝트는 계속 실패한 상태에서 개인사무실이 공공프로젝트를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설계원을 만들었다.

개인 일은 사무실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김영섭, 정기용 두 교수와 함께 대학원 과정에 설계원을 만들어 공공건축의 설계와 가버넌스 과정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수행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 것이다. 현재 3년째 학생들과 더불어 작업 중이다.

서울건축학교 등의 활동에 몰두한 이유

1960년대 대학교 졸업하고 뚜렷한 생각 없이 사무실 다닐 때 "건축사 사무소는 무엇을 하는데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을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알았다.

지금 직능교육으로 5년제 인증제도는 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사무실들은 그에 걸맞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건설사들 책임 벗어나는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

막상 건축주에게 제대로 할 일을 못해주고 하는데, 설계비 문제만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형사무소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작은 사무소들에게도 제공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단지 큰 일을 한다고 욕먹지는 않

인터뷰 후기

옛날에 한동안 건미준 서울건축학교 초창기에 조성룡 선생 등과 같이 모임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 저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나의 의아함은 자연히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건축계에 이름을 내려고 하는가 하는 의심도 하였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그와 대면하면서 그런 의혹들이 풀렸고, 한편 그렇게 젊은 시절에 그런 후일을 생각하고 서울건축학교 등의 일을 꾸준히 할 해안이 있었나 싶어 놀랐다. 그는 글 중간에 밝힌 것처럼 장기간 일을 못하면서 내공을 쌓아 의재미술관으로 건축계에 화려하게 재등장한 것과 하나하나의 건축에 혼신의 힘을 쏟는 장인정신을 가진 건축사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인터뷰-최동규 건축사지편찬위원회 위원장

을 것이다.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건축주들이 교수라고 해서 비즈니스맨 보다는 다르게 봐주는 정도라고 할까?

구청에 가면 구청장 옆에 앉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교수도 상당히 대접 받는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4.3그룹, 건미준, 서울건축학교 등 소위 뜻있는 건축사그룹과 활동하면서 사회적 운동을 할 필요는 있지만 시간이 들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람을 기르자고 생각해서 참여한 것이 서울건축학교이다. 10년 후에 나가서 활동할 사람들을 기르자고 한 것이다. 당시 한참 유행 갔다가 돌아온 건축사들이 많을 때였다. 그들을 위해서 활동할 터전을 만들 생각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었다. 학생들과 세대 간 격차도 적고 한국건축계에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했다. 서울건축학교 교장을 10년간 맡아서 했고 다행인 것은 그때의 튜터선생들이 이제는 건축계의 중진이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교육 그리고 건축사 소사이어티가 튼튼해지기를 원했다. 2003년에 교장을 그만두고 서울건축학교 시스템이 이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갔으니 제도권에 편입된 셈이다.

공공의 건축활동으로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탄생에 도움을 준다

공공적인 활동으로는 2006년부터 8년까지 대통령자문 건축문화혁신화 위원회(위원장 김진애)의 위원으로 2년간 활동했다. 그동안 건축기본법도 만들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책 건축도시연구소도 만들어졌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개발과 연구가 중요하데 이번 정권 들어 와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안타깝다.

현재 시점에서 건축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사로 활동할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어떤 개념과 자세로 임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을 끊임 없이 궁리하는 것이 건축설계원의 목표이다.

건축, 도시, 조경 등의 영역을 느슨하게 넘나들며 다른 디자인 영역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영역싸움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협동으로 발전시키려고 말이다.

후배 건축인들이 내가했던 활동들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후배 건축인들에게는 내가 그동안 참여해서 해왔던 운동들에 대해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왜 필요했었는지 이해해주었으면 하고, 지금 이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한다. 지금에 와서 젊은 건축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궁리하려면 전에 있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출발하면 된다.

'열심히 일 하자'가 나의 좌우명

도시와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면서 균형감 있는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자,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다.

10년 단위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미래는 잘 모르겠다. 나에게 나중이라는 개념은 없다.

현재로는 69세까지 열심히 하고 또 잘되면 79세 또 89세까지 하고 싶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주택 두 채, 도심인 청운동에 있다. 삼선동 성벽 옆 재개발 예정 지구에 오래된 불교사찰을 리모델링하는 작업과 정릉3동 구릉지를 재개발하는 작업인데, 저층아파트 1,400세대와 마스터플랜과 정비 계획은 끝났고 실시설계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건축단체의 통합이 어려우면 폐지는 어떤가?

한국건축계의 고질이라면 건축단체의 통합인데 통합이 안 되면 단체의 폐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폐지되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벌써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심각하다. 어떤 방법이든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세대고 후배 건축인들을 위한 것이다. 미래의 건축사와 학생들을 위하고 건축사회 전반을 보고 미래를 직시했으면 한다.

우리 현 사회의 공공성은 과연 무엇인가? 전자 테크놀러지가 극도로 활성화된 이런 시대의 시공간에서 공공조직인 커뮤니티를 위해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건축은 개인이 책임지면 되고 연대할 것은 연대하여 건축단체들이 후원하고 할 때만이 건축사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 도시에 일 뺏기고 조경에 뺏기고 건물만 책임지는 건축사가 된 셈이다. 1995년 까지 종합건축사제도 때문에 우원건축으로, 지금은 조성룡도시건축으로 책임진다는 선언을 하는 기본으로 사무소 개명을 한 것이다.

양극화문제도 모럴이 존재하면 괜찮다

양극화문제는 서로가 잘하면 된다. 잘못하니까 문제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은가.

결국 문제는 직업윤리이다. 대형사무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가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한다. 개인사무소의 기여는 한계가 있고 대형회사는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할 일만 하면 된다.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작은 사무소가 도저히 못하는 일들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의 노하우 등이 공유되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다. 그런데 수수해서 작은 사무소에 하청주고 그러다보면 같이 망한다. 수수라는 말 자체가 틀린 개념이다. 커미션이 맞다. 큰 사무소와 자본의 흐름이 융합하여 턴키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턴키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결과는 어떤가?

이제는 BTL이라는 방식까지 나타나서, 이를테면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타난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보편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으로 대형조직은 합당한 일만 하고 모럴을 지켜야한다. 직업윤리를 지킬 때만이 대형사무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사무소건 작은 사무소건 규모의 논리보다는 건축사라는 '프로페셔널리즘'이 확립되어 직업의 자긍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